

사 사이트 신영희 나이사 대표

“아시아계 대나무 천장 뚫도록 잠재력 개발 도와”

“아시아계 인재가 겪는 끈끈한 바닥(sticky floor), 대나무 천장(bamboo ceil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인 스스로 유망한 리더를 길러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에 설립된 신영희 나이사(Naisa) 대표 말이다.

나이사는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젊은 아시아인 전문 직업인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해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교육단체다.

신 대표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현지에서 학위를 마친 뒤 미국 워싱턴DC 소재 아메리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신 대표 스스로가 아시아계 유학생으로서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겪었던 ‘아시아계 디스카운트’에 대한 문제 해결 필요성으로 나이사를 설립했다.

신 대표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 25%, 실리콘밸리 인력 50~60%를 아시아계 인력이 차지하고 있지만 표준

500기업 CEO 중 아시아계는 1.5%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아시아계 리더는 30년 전과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구회가 기간 중 성공관대에 초빙교수로 근무하며 고국 성장과 함께 글로벌 리더 양성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꼈다. 하지만 한국만의 노력으로는 힘들다고 판단, 그 범위를 아시아 전체로 잡았다. 아시아(Asian) 스펠링을 거꾸로 읽은 ‘나이사’를 단체 명으로 삼은 이유다.

나이사가 가장 먼저 ‘멘토-프로티지’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수한 아시아계 인재들이 민간 및 공공 분야 다양한 직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위 임원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한다. 로펌 파트너, 벤처기업가, 비즈니스 리더, 정부 관료 등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멘토로 참여한다.

프로티지는 웹사이트(www.naisaglobal.org)를 통해 신청받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멘토 역시 심사

를 거치지만 나이사 이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초청하기도 한다.

신 대표는 “철저한 심사를 통한 일대일 매칭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며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알맞은 때 건설적인 조언과 도움을 주고, 네트워크를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홉 달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첨단 멘토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 총 200쌍 멘토와 프로티지를 연결하고, 2017년 말까지 세계 곳곳에 1만명 지원을 받아 그 중 1000명을 멘토와 맺어줄 계획이다.

현재 밴쿠브아메리카, 월드뱅크 등 고위 임원이 멘토로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김선옥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초 방한해 20여개 대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구자열 LS그룹 회장(맨 오른쪽)은 지난 29일 제주초전도센터와 HVDC스마트센터에 방문해 현장 경영을 펼쳤다.

구자열 LS그룹 회장, 제주도 현장 경영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제주도 현장 경영으로 초전도와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상용화에 힘을 실었다.

구 회장은 지난 29일과 30일 이틀간 제주 LS전선 초전도센터와 LS산전 HVDC스마트센터를 방문, 그룹 신기술·신성장동력 확보 현황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2009년부터 정부와 한전 주도로 에너지 신시장 창출과 확산을 위해 조성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구축됐다. LS전선과 LS산전은 대규모 투자로 차세대 전력망 핵심기술인 초전도와 HVDC 기술 등을 실 계통(Grid)에 적

용하고 신뢰성 검증 등 기술 국산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LS그룹은 그룹 핵심 역량인 전기·전력 분야에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접목시켜 고효율 전력 전송시스템을 구현, 제주도가 ‘탄소제로(0) 섬’이 되는 데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구 회장은 “LS그룹이 신사업으로 추구하는 에너지 효율 기술이 총집결돼 있고 차세대 기술 상용화 가능성이 검증되는 곳이 제주도인 만큼, 이곳의 사업성과가 LS그룹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취임

제15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으로 정용빈(64세)씨가 취임한다. 정용빈 신임 원장은 삼성전자 상품기획센터장(디자인 포함, 이사)을 거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원장, 서울디자인재단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경영단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1일 10시 코리아디자인센터 6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수상

인재환 엠프론티어 대표는 최근 한국로지스틱스학회와 서울대 한상공회 소 주관으로 개최된 ‘2015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시상식에서 물류 솔루션·컨설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엠프론티어는 물류 솔루션·컨설팅 선진화 및 혁신으로 국내 공급망관리(SCM)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KT·獨 로테슈바르츠 5G 공동연구

SK텔레콤은 통신 네트워크 계속 전문 업체인 독일 로테슈바르츠와 5세대(5G) 이동통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원천에 본사를 둔 로테슈바르츠는 1933년 설립됐다. 통신 네트워크 계속기 분야와 IT, 무선통신 분야 핵심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70여개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업체로 기술 노하우와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SK텔레콤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사는 5G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차세대 초고주파 무선 접속’ 기술 설계와 분석을 위한 테스트베드 공동 개발에 뜻을 모았다. 60% 이상 초고주파 대역에서 기지국과 단말 간 전송손실, 다중반사 등을 측정·분석할 계획이다.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은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왼쪽)과 크리스티안 라이셔 로테슈바르츠 최고 운영책임자가 기념촬영했다.

“이번 협약이 5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반도체 장비 ‘BEST 10’ 27년 연속 선정

〈고객만족 상위〉

아드반테스트

아드반테스트(대표 구로에 신이치로)는 고객 만족도가 높은 대기업 반도체 장비 업체 상위 10개사를 뜻하는 ‘BEST 10’에 27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 VLSI 리서치가 발표한 이번 조사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 96% 이상 기업이 참여했다. 공급업체 성과와 고객 서비스, 제품 성능 세 가지 기준 15개 분야를 평가했다.

올해 조사에서 아드반테스트는 ‘추천 가능한 공급업체’와 ‘기술 선진성’ 부문에서 최고 평점을 획득하면서 자체 최고 점수도 갱신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한화그룹이 중국 사막화 방지를 위한 ‘태양의 숲’ 조성 사업 일환으로 사막지역 초등학교에 학교 숲을 만들어 기증했다. 한화그룹과 인천시 관계자가 낚사 자치구 인천시 징통회민소학교에서 식수 행사를 열었다.

한화, 中 사막화 지역 초교에 숲 조성

한화그룹이 중국 사막화 방지를 위한 ‘태양의 숲’ 조성 캠페인에 동참해 사막 지역 초등학교에 숲을 조성한다.

한화는 최근 중국 낚사자치구 인천시에 위치한 징통회민소학교에서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와 화단 가꾸기 행사를 벌였다. 인천시는 황사 방원지로 알려진 고비사막과 마오쓰사막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막화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회민소학교는 소수민족인 회족 거주 지역에 있어 학교예산이 부족하고

교내 녹지가 거의 없었다. 한화는 학교 내 1300㎡(약 400평)에 모래먼지를 막는 방풍림과 화단 등을 조성한다. 백송, 노송, 은행나무, 버즘나무, 중국양단풍, 라일락, 개나리 등 나무와 원추리, 국화, 장포 등 총 1만 그루 나무와 꽃을 심는다.

나무심기 행사엔 김영락 한화차이나 상무, 트리플래닛(사회적기업), 중국자연보호관리국, 낚사자치구 및 인천시 관계자와 학교 어린이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삼성전자 ‘김연아와 함께하는 에어 3.0 클래스’ 이벤트 삼성전자는 ‘삼성 스마트 에어컨 Q9000’ 모델 김연아가 지난달 30일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일일 스케이트 전도사로 나섰다. 김연아는 ‘김연아와 함께하는 에어 3.0 클래스’ 이벤트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함께 스케이트 타는 시간을 보냈다.

인사

◆기획재정부 <실정급>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파견 김용진 <국장급> △사회예산심의관 구유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 임기근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파견 홍두선 <과장급> △총사업비관리과장 강길성 △민간투자정책과장 이상영 △국제경제과장 이상목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 손성은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승진 임용> △획득기획국장 김일동

◆중소기업청 <과장 전보>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정기환 △중견기업정책국 기업혁신지원과장 정병락

◆KOTRA <상임이사 승진> △정상외교경제활용지원센터장(정보통신지원 본부장 겸임) 윤원석 <간부 보임> △경제외교지원실장이종건 △상사비즈니스지원실장 권중현 △경제외교기획팀장(경제외교사업팀장 겸임) 이금하 △경제외교성과확산팀장 빈준화 △카메라지원팀장 김형일 △투자기원팀장 강형근 <해외 무역관 파견> △안만무역관장(다마스쿠스무역관장 겸임) 노철 △알제무역

관장 조기창 △모스크바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운영팀장 김민환 △청두무역관장 최광수 △런던무역관장 김윤태 △델리무역관장 오태영 △타이베이무역관장 박한길 △마카오무역관장 김명수 △몽골무역관장 이동원 △키예프무역관장 유승호 △베오그라드무역관장 개설요원 박찬길 △다레살람무역관장 전우형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부관장 강병수 △산토도밍고무역관장 배상범 △싱가포르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운영팀장 이기석 △리마무역관장 김철희 △샤먼무역관장 김태현 △창사무역관장 김주철 △올라바트무역관장 한창윤 △광저우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운영팀장 김준규 △브라티슬라바무역관 개설요원 최규철 △아비니무역관장 정덕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승진> △정책연구실장 홍성준 △인력운영실장 이동우 <전보> △총무복지실장 송육진

◆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류형철 △소통협력팀장 김병태 △교통환경실장 남광현 △SOC환경실장 권태범 △상생협력연구실장 송재일 △미래전략팀장 오동욱 △공공투자센터 소장 박성덕

◆파이낸셜뉴스 △소비자경제연구 소장 이성구

부음

▲김동선(전 대한전선 부사장)씨 별세, 김성욱(한양대 응용수학과 교수)씨

부친상, 유석진(코오롱 전략기획실장)씨 장인상 = 5월 31일 오후 2시 4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3일 오전 7시, (02)3010-2263

독자 여러분의 인물동정·인사·부음 등 제보를 받습니다. 전화 (02)2168-9410 이메일 people@etnews.com

저금리 시대!

사옥은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 임대료로 줄줄 새는 고정비 지출
- 저금리기조를 이용한 사옥매입 후 필요하신 면적만 사용하고 추가적인 임대수의 발생
- 향후 시세상승으로 기업의 자산가치 상승
- 귀사가 원하는 수익성과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사옥을 찾아드립니다.

◆ 추천 빌딩 ◆

- 강남 테헤란로 랜드마크빌딩
- 대기업 밀집지역으로 대로변에 위치
- 시세대비 구매
- 대지 700㎡ / 연면적 6,000㎡ / 450억원

- 강남의 마지막 황금라인 봉은사로에 위치함
- 현 사옥 준공 후 24배의 폭발적인 성장률 이룬 기업의 사옥
- 대지 800㎡ / 연면적 4,500㎡ / 230억원

- 강남 트랜드의 중심 도산대로변에 위치함
- 명품브랜드 법인 사옥
- 대지 1,100㎡ / 연면적 3,500㎡ / 350억원

· 이외 강남3구, 종로, 여의도, 분당지역 물건 다수 보유

20년 전통의 사옥 및 수익형 빌딩 전문 중개법인 - (주)프리미에셋부동산중개

TEL : 02-557-1036

대표 박세민